

사법연수원 『제46기 사법연수생 수료식』

234명 새 법조인 탄생

- 지난해보다 취업률 6.6% 포인트 하락 -

- 차현우 씨 수석 ‘대법원장상 수상’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법조인들의 ‘취업 한파’가 더 심해졌다. 수료생 숫자가 감소했음에도 법률시장 경기가 악화되면서 지난해보다 취업률이 6.6%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사법연수원(원장 조용구)은 지난 1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6기 사법연수생 234명에 대한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생 숫자는 지난해 356명에 비해 122명이 줄어들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사법시험 합격생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수료한 연수생 가운데 군입대 예정인 43명을 제외한 191명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45%에 불과한 8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취업률 51.6%보다는 6.6%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사법연수원 수료생 취업률은 2011년 56.1%에서 2012년 40.9%로 떨어진 이후 계속 40%대에 머무르다 지난해 50%대로 잠시 회복했지만 올해 다시 40%대로 떨어졌다.

직장을 구한 수료생 가운데 검사로 임용된 사람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원 재판연구원(로콜력) 24명, 법무법인(로펌) 23명 순이었다. 5명은 단독 혹은 공동으로 변호사사무소를 개업했으며, 4명은 공공기관에 취업했다. 일반 기업체에는 4명이 취업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진로정보센터의 활성화, 취업설명회 개최, 지도교수 및 취업전담교수의 적극적인 취업지도 등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채용 과정을 진행 중인 연수생들이 많아 상반기 안으로는 나머지 수료생들도 대부분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료한 제45기 연수생들도 수료식 당시에는 51.6%의 취업률을 보였지만 8월에는 96.4%가 취업이나 개업 등 창업에 성공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양승태(69, 사법연수원 제2기)대법원장과 이창재(52, 사법연수원 제19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하창우(63, 사법연수원 15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심상철(60, 사법연수원 제12기) 서울고등법원장, 임종현(58, 사법연수원 제16기) 등, 연수생 가족 등이 참석해 법조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연수생들을 축하했다.

양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함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를 지님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해 달라.”며 “단순히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직무대행은 “최근 일부 법조인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행태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무리한 욕심은 스스로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마저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 달라.”고 강조했다.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은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선배들의 좋은 점을 배우되 그렇지 못한 점은 과감히 청산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성적 최우수자인 차현우(28)씨가 대법원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무부장관상은 김수현(25)씨,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은 김동일(27)씨가 각각 차지했다.

수료생 중에는 강종래 변호사의 아들 상우(37)씨, 변종춘 변호사의 아들 성훈(35)씨, 이현승 변호사의 아들 원석(34)씨, 남명진 변호사의 아들 원석(28)씨, 신용길 변호사의 아들 승현(28)씨, 전오영 변호사의 딸 민정(27)씨, 황용환 변호사의 아들 윤수(27)씨가 포함돼 법조인으로 첫발을 내디뎠다.